

초대받지 못한 그들... 한진·부영·대림 제외 이유는?

오늘 청와대 대·중견기업인 간담회

갑질·횡령·폭행 등 논란기업 제외 자산순위 고려해 대한상의서 판단

문재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들의 청와대 간담회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진·부영·대림 3개 기업이 제외돼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15일 간담회에 참석하는 명단은 (전부) 대한상공회의소가 추천한 기업"이라며 "상의는 대기업 선정 관련 '자산순위(25위 기업 대상)'를 고려했고, 중견기업 선정 관련 '각 업종 대표'를 고려했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상의의 자체 판단"이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7월 청와대에서 재계와 가진 호프 미팅에 참석한 모습. /청와대

고운을 됐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상의는 참석 관련 사회적 여론·논란이 부각될 경우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

로 한다"며 "그래서 자산순위 25위에 속하는 기업 중 한진·부영·대림 3개 기업이 빠지게 됐다. 아까 말했듯 사회적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경우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

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했다.

실제 ▲한진그룹은 총수 일가의 갑질 행위로 여론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부영그룹은 이종근 회장이 횡령·배임 및 조세포탈 등 혐의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대림그룹은 이해욱 부회장의 운전기사 상습폭행 및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검찰 고발이 검토 중에 있다.

한진·부영·대림 3개 기업은 제외된 반면, 이번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가할 기업인은 전국상공회의소 회장단 67명·대기업 22명·중견기업 39명 등 총 128명 임을 상의는 알렸다.

상의에 따르면 대기업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정희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최태원 SK그룹 회장·구광모 LG그룹 회장·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허창수 GS그룹 회장·김

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2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에서는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우오현 삼라미아디스그룹 회장·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편 문 대통령과 대기업·중견기업인 간담회는 대통령이 새해부터 이어온 경제 행보의 일환이다. '기업이 커가는 나라,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 슬로건인 이번 간담회는 지난 7일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에 이은 경제계와의 두 번째 대화 시간이기도 하다.

간담회 진행 방식은 지난 중소·벤처기업인과의 대화 때와 동일하게 '타운홀 미팅'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 진행자로는 박용만 상의 회장이 맡는다. 대통령 행사에서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참석자 측에서 '진행자'를 맡는 것은 이례적이라 평가다. /우승준·김재용 기자 dn1114@metroseoul.co.kr



인터뷰 이찬희 대한변협회장 단독후보

"회무경험·추진력·소통능력 겸비 새 시장개척 등 변호사회에 헌신"

(변호사회 업무)

18일 조기투표, 21일 본투표... 대한변협회장 선거

'변호사들의 변호사'인 제50대 대한변협회장 선거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단독후보인 이찬희 전 서울지방법변호사회장은 수도권에서 막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변협회장 단독 후보는 전체 선거권자 1/3이상의 표를 얻어야 당선되기 때문에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찬희 후보는 지난 13일 서면 인터뷰에서 "내부 화합으로 유사직역 침탈을 막고, 변호사 해외 진출과 청년 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지원 등으로 새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했다. 서울지방법변호사회장 시절 어떤 고민을 했다.

"변호사 업계는 외부 법조인사 직군의 거센 공세를 받고 있다. 변호사와 변호사회를 위해 '누군가는 나서줘야 될 때'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풍부한 회무경험과 서울회에서 보여준 강한 추진력, 회원들과 진솔한 소통능력을 가진 내가 변호사회를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출마했다."

-직역 수호 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계획인가.

"풍전등화다. 법조유사직군(세무사·변리사 등)의 로비로 조세·특허·소액사건·노무 등 모든 영역에서 변호사 고유사무인 소송마저 침탈당할 위기다. 서울회장 시절 청와대·국회·정부·법원·검찰·경찰 등 외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상생 체계를 구축했다. 회원 권익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만났다. 상대방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고 이해시켰다. 주말에도 서울회관에 출근해 회무(변호사회 업무)를 점검했다. 변호사 직역수호와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해외로 눈 돌려 일자리 늘릴 것"

-변호사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새 시장을 개척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 "해외로 진출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 변협에 변호사 직역 확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미래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대체적 분쟁해결(ADR) 제도의 활성화로 블루오션을 개척하겠다. 성년후견인 제도 시장 선점으로 새로운 업무영역을 개척하겠다. 변호사의 해외진출과 청년 변호사 해외로펌 연수 적극 지원 등 국제변호사단체와 함께 글로벌 업무네트워크 구축도 적극 추진하겠다."

미래기획위원회 설치 등으로 법률전문가 해외 진출길 마련 글로벌업무 네트워크 구축 추진

-서울변협 회장 시절 집행부 15명 중 7명을 로스쿨 출신으로 앉혔다. '갈등 해소와 화합의 시작'이라는 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서울회장 시절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부모 잘 둔 음식제', '실력이 없다'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아 마음이 아팠다. 함께 일하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훌륭하다는 점을 많이 느꼈다. 한 방송사의 100분 토론에서 로스쿨 변호사를 옹호했다가, 과장해서 '영혼까지 털리는' 공격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변호사들이 가진 편견을 없애주려 노력했다. 지난 2년간 서울회장을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적재적소 기용했다. 이들은 사법시험 출신들과 위원회를 훌륭하게 꾸려갔다. 사시와 변시 출신 간 갈등도 많이 해소됐다. 사시 존치를 주장했던 분들은 저를 냉대했지만 이제는 따뜻하게 맞아주신다. 내부 갈등 극복과 유사직역 침탈 방어를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화합해야 한다."

◆단합된 투표로 변협 '도약' 해야

-일선 변호사들이 요구하는 변협의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건가.

"단합이다. 그간 협회장 선거 때마다 이념대결, 서울과 지방의 대결, 기성과 청년변호사의 대결, 사시와 로스쿨 출신의 대결 등으로 상처와 앙금을 서로에게 남겨왔다. 그 후유증으로 법조유사직군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부에서 결집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었다. 이번 선거는 위기에 놓인 변호사회가 '도약의 계기가 되는 단결'을 이루어내라고 하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기회다. 이번 선거는 그 어떤 대결 구도도 필요 없다. 나 역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 대신, 헌신과 봉사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면 되기에 할까분하다."

-요즘 법조 삼문으로서 변협의 존재감이 낮아졌다는 비판이 있다. '존재감 있는 변협'의 조건은.

"투표다. 유권자인 회원들의 무관심으로 선거가 무산된다면, 외부적으로는 국민과 법조유사직군과의 관계에서 변호사의 위상 실추가 예상된다. 내부적으로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로 회원들의 손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변호사의 자존심을 지키고, 갈등을 봉합해야 한다. 방법은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뿐이다." /이법중 기자 joker@

이찬희 후보 프로필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S.J.D)과정 수료
-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 제94대 서울지방법변호사회 회장
-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 사법연수원 운영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총괄조정위원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 대한법성경기연맹 법제이사

오늘부터 韓-中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산업부, 부산서 3일간 개최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이달 15일부터 17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3차 협상에 우리측은 김경일 산업부 FTA정책관, 중국측은 양 정웨이(楊正偉) 상무부 국제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양국 정부부처 대표단 40여 명이 참석한다.

지난 2차 협상에서 서비스·투자 협정문 협상을 개시한 양국은 이번 3차 협상에서 이미 교환한 협정문 초안의 통합 작업을

가속화하고, 시장개방 협상의 시기와 방식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분과별로는 시장개방 수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양측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핵심 쟁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이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자유무역 확산에 대한 양국의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국 내 서비스 시장 선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해수부, 해양수산자원 등급제 도입

제1차 관리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앞으로 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전략적 관리를 위해 연구해본 아니라 배타적경제수역(EEZ)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 등급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을 14일 발표했다.

이번 제1차 기본계획은 ▲전략적 자원 확보 체계 마련 ▲활용과 연계한 자원 관리역량 강화 ▲자원 이용가치 제고 및 업계 지원기반 마련 ▲자원 가치 및 보전 필요성에 관한 국민 인식 제고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해수부는 우선 생명자원 주권을 강화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송명달 해양환경정책관이 제1차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기본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고자 연차별로 대상 지역을 정해 해양수산생명자원 조사 범위를 연구하는 물론 EEZ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고용보험 가입 안해도 '내일배움카드' 지원

노동부, '누리집' 홈페이지 신청접수

앞으로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직업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15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노동자들도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4일 밝혔다.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업훈련에 참여해 능력을 개발할 기회가 없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노동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이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 노동자다. 누리집(www.hrd.go.kr)에서 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할 수 있고, 듣고 싶은 훈련과정도 검색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정하게 훈련비를 지원받은 경우, 직업능력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훈련비의 200%까지 환수 조치를 받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